

삼성화재, 캐노피우스 품고 보험영업 수익성 개선 ‘날개’

영 캐노피우스 지분 40% 보유
상반기 지분법손익 1685억
지분·자회사 매각 효과 1073억
보험료율 ↓·보험료 ↑ 외형성장

영국 특수보험사 캐노피우스가 삼성화재 수익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는 캐노피우스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다. 보험료율 하락과 사업비 부담 확대 속에서도 보험영업 수익성을 개선에 기여한 것. 지분 확대와 자회사 매각 효과가 삼성화재에 반영되는 이익을 키운 가운데, 향후 이익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과제는 캐노피우스의 보험영업 수익성 유지라는 분석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 3일 해명공시에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도된 영국 대형손보사 인수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기존 해외 투자처인 캐노피우스는 이미



서울 서초동 삼성화재 사옥.

/삼성화재

삼성화재 실적에 기여하고 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캐노피우스 지분법손익은 1685억원이다. 지분 확대 효과 684억원과 캐노피우스의 자회사 매각 효과 389억원이 반영됐다.

◆ 손해율 개선이 사업비율 상승 상쇄
캐노피우스의 상반기 실적을 보면 합산 비율은 87.3%로 전년 동기 89.7%보다 2.4%포인트(p) 낮아졌다. 손해율과 사업비

율을 더한 합산비율은 낮을수록 보험영업 수익성이 좋다는 뜻이다. 비교 수치는 모두 보험금의 현재까지 할인 효과를 반영하기 전 기준이다.

사업비율은 36.2%에서 38.6%로 높아졌지만 손해율은 53.5%에서 48.7%로 낮아졌다. 손해율 개선 폭이 사업비율 상승 폭을 웃돌며 보험영업 수익성을 끌어 올렸다.

다만 손해율 개선에는 사고 환경의 도움도 있었다. 캐노피우스는 상반기 대형 재해가 적었던 점과 일상적인 보험사고의 손해율이 양호했던 점을 개선 배경으로 들었다. 재해 발생과 손실 규모에 따라 손해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상반기 개선 폭을 그대로 향후 실적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 요율 경쟁에 계약 선별

보험료를 하락 압력도 커지고 있다. 캐노피우스 포트폴리오 기준 상반기 보험료율은 7% 하락해 전년 동기 하락 폭인 4%보다 컸다. 보험계약 인수에 따른 보험료는 전년 동기보다 10% 늘어 외형 성장을 이어갔다.

보험료율이 내려가면 같은 위험을 보장하면서 받는 대가가 줄어든다. 계약을 늘리는 과정에서 적절한 가격을 확보하지 못하면 향후 보험금 지급 부담이 수익성을 압박할 수 있다.

캐노피우스는 상반기 실적자료에서 버뮤다의 여러 주요 계약을 가격 때문에 갱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가격 조건이

맞지 않는 계약은 걸러내는 대응이다. 또한 전반적인 요율의 적정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후이익 증가율을 볼 때도 매각 효과를 구분해야 한다. 캐노피우스의 상반기 세후이익은 3억91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76% 늘었다. 자회사 베이브(Vave) 매각 효과를 제외하면 2억6100만달러로 증가율은 18%다. 매각 효과를 뺀다면 이익은 증가했지만, 전체 증가율을 반복 가능한 성장세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

삼성화재는 확대된 지분을 통해 캐노피우스의 성과를 더 많이 반영하게 됐다. 앞으로 이익 기여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려면 요율 경쟁과 재해 손실 속에서도 보험영업 수익성을 유지해야 한다.

닐 로버트슨 캐노피우스 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6일 실적발표 자료에서 “가격 원칙을 지키며 엄격하고 선별적인 자본 배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새마을금고, ATM ‘배리어프리’ 전면개편

장애인·고령자 금융접근성 보장
2.9억 투입, 사용자중심 UI·UX 개선
입출금·공과금 수납 화면도 재설계

새마을금고가 기존자동화기기(ATM·공과금수납기)를 ‘배리어프리’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장애인과 고령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입출금, 이체, 공과금 업무 등 자동화기기의 시스템을 재설계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새마을금고는 ‘배리어프리 자동화기기 UI(사용자 인터페이스)·UX(사용자 경험) 컨설팅 및 개발지원’ 용역을 발주했다.

배리어프리 자동화기기 개편 사업은 금융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사용자 중심의 UI·UX 개선 및 서비스 품질을 고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은 2억9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먼저, 사전적으로 장애인·고령자 등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의 사용성 및 접근성을 검토, 분석한다. 국내외 선진 금융기관의 배리어프리 자동화기기 사례를 분석해 새마을금고만의 통일된 적용 방안도 마련한다.

이 외에도 출금·입금·이체·공과금 수납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상세 화면을 새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새마을금고중앙회

롭게 설계한다. 거래 단계별로 금융취약계층의 동작과 화면 반응을 정의하고, 비밀번호 오류, 타임아웃 등 오류 상황 시 복구 시나리오를 점검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키패드·음성안내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 화면을 주시하지 않더라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음성안내와 동기화된 점자 키패드를 설계한다. 전맹 시각장애인이 독립적으로 금융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시스템 설계 후에는 사용성과 접근성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평가단을 구성해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에 따라 시스템별 항목을 평가한다.

이번 사업은 자동화기기 자체를 물리적으로 전면 교체하는 대신 기존 기기에 신규 프로그램을 적용해 성능을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사업은 아직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장애인·노령층 고객들이 편하게 새마을금고 ATM을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설계하는 단계”라며 “발주 용역이 끝나면 기기 자체를 바꾼다기 보다는 프로그램을 이식해서 음성을 조절하고, 화면을 키우는 방식 등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실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오프라인 금융서비스 수요는 모바일, 인터넷 뱅킹 등 온라인 방식보다 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2023년 진행한 설문에서도 ‘ATM 등 자동화기기’ 이용 경험은 60.4%로 은행 등 창구 방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한편, 배리어프리는 배리어(barrier·장애물)와 프리(free)의 합성어로,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불편한 물리적·심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기 위한 사회적 운동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새 수협은행장, 신학기 vs 이형주 ‘2강 구도’

내·외부 출신 3명씩, 6명 면접 진행
21일 면접, 22일 최종 후보자 선정

신학기 Sh수협은행장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차기 행장 선임 절차가 본격도에 올랐다. 지원자 6명 전원이 면접 대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신 행장과 함께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최근 은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를 열고, 차기 행장 모집 공고에 서류를 접수한 6명 전원을 면접자로 올렸다. 면접은 이날 21일이며, 22일 최종 후보자가 선정된다.

면접자는 수협은행 내부 출신 3인과 외부 출신 3인으로 구성됐다. 내부 출신에는 신학기 수협은행장과 박양수 전 수협은행 부행장, 정철균 전 수협은행 부행장이 도전장을 내민다. 외부 출신에는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강철승 한국수산업자협회 대표, 이형승 BNK증권 사외이사가 이름을 올렸다.

◆ 6인 후보 면면은

신 행장은 1968년생으로 경남 창원 출생이다. 지난 1995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했다. 이후 수협은행 전략기획부장, 남부 광역본부장, 경영전략그룹 수석부행장 등을 역임한 뒤 2024년 말 은행장 자리에 올랐다.

박 전 부행장과 정 전 부행장 역시 30년 정통 ‘수협맨’이다. 박 전 부행장은 1968년생으로 수협은행 일선 지점장과 전남지역금융본부장, 서부광역본부장 등을 지냈다. 정 전 부행장은 1966년생으로 금융기업부 전략기획팀장과 감사실장, 동부광역본부장, 기업그룹 부행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외부 출신 인사인 이 원장은 1972년생으로 금융위원회 출신이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금융정책과장, 금융정책국장, 상임위원 등을 거쳤다. 2018~2020년에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부속실 선임행정관 등을 지냈다. 현재 FIU 원장을 맡고 있다.



신학기
Sh수협은행장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

강 대표는 1948년생으로 해양수산부의 전신인 수산청에서 25년 이상 근무하며 수산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이 BNK 사외이사는 행정고시 29회로 재정경제부 서기관을 지냈다. 이후 CJ그룹을 거쳐 IBK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다.

◆ 신학기 vs 이형주… ‘2파전’

금융권에서는 신 행장과 이 원장을 유력 후보로 보는 분위기다.

신 행장의 경우 자산운용사 인수, 증권사 인수 등을 연속으로 추진하며 비은행 확대를 이끌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거론된다. Sh수협은행은 지난해 트리니티자산운용 인수를 마무리하며 Sh수협 자산운용을 출범시켰다. 현재는 상상인증권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의 현직 1급 고위공무원으로, 당국과의 소통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현직 고위공무원이 수협은행장직에 지원한 것이 이례적인 만큼, 정부 측 인사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 제3의 후보 가능성도

낙한산 인사를 경계하는 목소리와 함께 2파전 구도에서 벗어나 다른 후보가 부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수협은행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번 인선이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취업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 식으로, 수협은행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자리를 목적으로 오는 인사는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며 “결국 낙한산 인사에 대한 의심은 위원회의 표가 어느 후보에게 쏠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 83주 연속 오름세

성북구 아파트 올해들어 14% 상승
이어 구로 11.06%, 강서 11.01% 등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8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특히 대출규제로 15억 원 이하 지역에 수요가 몰리면서 올해 들어서는 10% 이상 급등한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반면 내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부담으로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3구는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하락했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아파트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08% 상승했다.

서울은 한 주간 0.2%가 올랐다. 전주(0.22%) 대비 상승폭은 줄었지만 83주 연속 쉬지 않고 올랐다.

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가격을 조정한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거래로 이어졌지만 선호도 높은 대단지와 역세권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며 서울 전체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특히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한 중하위 지역의 상승세가 가팔랐다.

강북구(0.46%)는 미아·변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도봉구(0.43%)는 창·쌍문동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43%)는 홍제·홍은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올랐다.

연초 이후 누적으로 보면 성북구가 13.52%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구로 11.06 ▲강서 11.01% ▲서대문 10.93% ▲관악 10.40% ▲노원 10.39% ▲중구 10.28% ▲동대문 10.1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35%, 0.30% 하락했고, 송파구도 -0.02%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안상미 기자 smahn1@